

Canerata PCO

로열 콘서트헤바우

카메라타

ACC
SUPER
CLASSIC

ACC 슈퍼클래식 카메라타 로열 콘서트헤바우

TICKET

공연일시	2025. 7. 4.(금) 19:30
공연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1
관람료	R석 90,000원 S석 70,000원 A석 50,000원
예매문의	www.accf.or.kr / 1899-5566
오시는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버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또는 문화전당역 지하철 문화전당역 3,4번 출구 자가용 주차장A, 부설주차장

할인정보

50%

경로할인(만 65세 이상 본인), 문화누리카드, 문화복지(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예술인패스, 문화패스(만7세~만24세)

20%

10인 이상의 단체, ACC 릴레이 티켓 (1인 2매/관람 전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할인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THEATER

주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F)
사장	김명규
사무국장	박상희
문화사업본부장	조정호
문화예술사업팀장	오채환
기획·운영	조혜진
문화예술사업팀	이준성, 이부용, 유선정, 임지현, 박지은, 오호철, 조혜진, 신지원
외주기획사	SBU
아카이브 사진촬영	배현태
무대기술총괄	임종민
무대감독	박성용
조명감독	조성호
음향감독	나인권

ACC 무대기술

무대 김평강, 김선진, 백용민

조명 임혜영, 김경은, 최영웅, 조민주

음향 김학수, 김왕민, 정인범, 김주희

김강산, 황혜은

영상 조영래

하우스매니저

최세영

공연장안내원

강다희, 강민지, 김석희, 박소연, 오윤지,
서현아, 유귀인, 윤고은, 이견영, 이혜름,
최지혜

공연관람 에티켓

ETIQUETTE



휴대전화의 전원은 미리 꺼주세요.

휴대전화의 액정 불빛과 진동 및 알람소리 모두 공연 감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커튼콜을 제외한 녹음 및 촬영은 금지입니다.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촬영과 녹음은 제한하고 있으며, 앵콜과 커튼콜 또한 연주를 시작하면 촬영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및 음료 반입은 금지입니다.

공연장 내에서 음식물 냄새 및 소음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공연 중 옆사람과 대화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대화소리라도 무대 위 연주자와 관객의 관객 모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 입장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객석에 착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이 시작된 후에는 입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중 자리 이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중 자리이동은 음악감상에 방해가 됩니다.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앉아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하모니를 선사하는
세계 최정상급 실내악단

카메라타 로열 콘서트헤바우

CAMERAATA RCO

로열 콘서트헤바우의 수석 및 핵심단원으로 이루어진
"카메라타 로열 콘서트헤바우"

현악기와 관악기가 어우러진 작은 오케스트라 구성으로
완벽한 사운드를 재현하는데 정평이 나있다.

세계 최정상의 오케스트라가 갖는 중후함과 유려한 사운드,
앙상블의 섬세한 화음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생생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콘체르트슈튀크 클라리넷, 바셋 호른, 그리고 현악을 위한 협주소품 Op.114

Konzertstück Op. 114 for Clarinet Basset horn and strings

I. Presto

II. Andante

III. Allegretto grazioso

멘델스존

F. Mendelssohn

9중주

Nonetto

I. Allegro

II. Andante

III. Allegro con spirito – Poco meno – Tempo primo

IV. Canzone con variazioni

V. Vivacissimo

니노 로타

Nino Rota

인터미션

Intermission

세레나데 1번 D장조 Op.11

Serenade No. 1 in D Major, Op.11

I. Allegro molto

II. Scherzo. Allegro non troppo - Trio

III. Adagio non troppo

IV. Menuetto I&II

V. Scherzo. Allegro – Trio

VI. Rondo. Allegro

브람스

J. Brahms

펠릭스 멘델스존

Felix Mendelssohn

콘체르트슈튀크 클라리넷, 바셋 호른, 그리고 현악을 위한 협주소품 Op.114

Konzertstück Op. 114 for Clarinet Basset horn and strings

펠릭스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Bartholdy, 1809~1847)이 작곡한 콘체르트슈튀크(Konzertstück, 자유롭게 간략한 형식의 협주곡풍 소품)는 1832년에 작곡한 1번 Op.113과 이듬해인 1833년에 작곡한 2번 Op.114 이렇게 두 곡이 존재한다. 콘체르트슈튀크는 협주곡 특유의 현란한 솔로악기 테크닉과 앙상블을 작은 규모의 앙상블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만큼 19세기 초반 청중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으며 유행했던 적이 있다. 작은 규모의 방에서 큰 규모의 콘서트 홀로, 콘체르트탄테에서 콘체르토로 음악이 대형화되면서 그 과도기에 태어난 이 장르는 19세기 중반 이후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음악적 가치와 효용성은 이후 음악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하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아갔다.

멘델스존은 뮌헨의 궁정음악가들로서 클라리넷 비르투오소로 이름을 떨친 하인리히 베르만(Heinrich Baermann, 1784-1847)과 그의 아들 칼 베르만(Carl Baermann, 1810-1885)을 1832년 12월 30일 베를린의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여기서 베르만 부자는 뮌헨의 요리인 담프누델른(Dampfnudeln)과 람슈트루델(Rahmstrudel)을 만들었는데, 베를린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요리에 고무된 멘델스존은 이에 대한 답례로 부자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중심인 클라리넷과 바셋 호른,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트슈튀크를 즉시 작곡해주었다. 이 작품을 베르만 부자가 1833년 초연을 하여 커다란 성공을 거두자 작곡가는 두 번째 작품을 재차 작곡해서 선물하게 되었다. 1번은 멘델스존이 직접 클라리넷과 바셋 호른, 오케스트라를 위한 버전으로 편곡했고, 2번은 이후 칼 베르만에 의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되었다.

이 가운데 클라리넷과 바셋 호른이 선보이는 선율의 아름다움과 복잡한 화성, 그리고 화려한 기교적 구절들이 특징적인 2번 Op.114는 작곡가의 뛰어난 재능과 작곡 기량을 잘 보여주는 매력적인 음악으로 손꼽을 만하다. 총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10여분의 연주시간을 요하는 이 작품은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로 시작되며 두 개의 솔로 악기와 피아노 혹은 오케스트라 사이의 매력적인 앙상블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담고 있다. 멘델스존의 능숙한 대위법 활용과 강약의 대비를 통해 작품에 깊이와 풍부함을 더함은 물론이려니와 큰 폭의 감정을 그려내는 선율들이 내면적인 우수로부터 해맑은 환희까지를 다채롭게 불러일으킨다. 특히 마지막 악장에서 클라리넷과 바셋 호른 사이의 복잡하고 정밀한 선율의 얹힘과 정교한 대화를 통해 긴장감과 흥분이 조성되는 모습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오케스트라 편곡버전의 편성은 플루트(2), 오보에(2), 바순(2), 호른(2), 현악기(5)로 구성된다.

니노 로타

Nino Rota

9중주

Nonetto

이탈리아 작곡가 니노 로타(Nino Rota, 1911-1979)는 우리에게는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 '8 1/2', '달콤한 인생'을 비롯하여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레오파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에 이르는 많은 이탈리아 배경의 영화음악을 담당했던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에서 알프레도 카셀라로부터 작곡을 배우고 미국으로 건너가 커티스 음악원을 거친 뒤 밀라노 대학에서 문학과 철학을 전공한 정통파 클래식 작곡가로서 이미 11세에 오라토리오, 13세에 오페라를 작곡하는 등 일찍이 천재성을 드러낸 바 있다. 다양한 장르에 걸쳐 많은 클래식 음악작품을 남겼는데, 당시 탈낭만주의적인 음악 경향과는 달리 19세기적인 화성과 고전적인 형식, 지극히 이탈리아적인 감수성을 고수했다.

그가 1959년에 위촉 받아 20여년이 지난 1977년에 완성한 노네토(Nonetto)는 9중주(Nonet)의 이탈리아어로 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이렇게 아홉 개의 악기로 연주되는 5악장 구성의 실내악 앙상블이다. 18세기 세레나데나 디베르티멘토 장르를 계승했다고 말해도 좋을 텐데, 무엇보다도 여러 목관들의 다양한 색채와 화려한 음향이 부각된다.

1악장부터 신고전주의적인 간결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느낌이 짙게 배어나오지만 느린 악장들에서의 지극히 이탈리아적인 서정성과 영화음악적인 분위기가 주는 감상성이 대단히 감동적이다. 전체적으로 로타 특유의 리듬감과 선율미가 돋보이는 작품으로서, 특히 트리오 구성의 3악장에서의 재기발랄함과 가운데 부분에서의 불협화적인 동시에 이국적인 흡인력의 대비가 귀를 잡아끌지 않을 수 없고, 마지막에 5악장에서의 고조되는 에너지와 눈부신 색채의 아이러니컬한 향연은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 작품인 '폴치넬라'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세레나데 1번 D장조 Op.11

Serenade No.1 in D Major, Op.11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1854년부터 1856년까지 뒤셀도르프에서 클라라 슈만을 도우며 그녀의 남편인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의 마지막 순간과 죽음을 함께했다. 이 시기는 브람스는 감정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작곡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다. 이에 비하여 1857년부터 1859년까지 데트몰트 궁정에서 일할 당시의 기간은 그에게 새로움을 위한 회복과 재정비의 시간이었다. 그는 이미 1855년에 하이든의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듣고, 교향곡을 비롯한 트리오와 소나타, 현악 4중주를 연구했고, 더불어 모차르트의 피아노가 포함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거나 연구할 기회도 많았다. 자연스럽게 하이든의 디베르티멘토나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같은 가벼운 장르의 합주음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고전적인 동시에 서정성이 확장된 스타일의 두 개의 세레나데 Op.11과 16을 작곡하게 되었다.

브람스는 세레나데 1번을 1857년부터 작곡하여 1858년 9월 완성할 당시의 편성은 현악(더블베이스 포함, 각 파트에 한 명 이상 연주)과 각 한 대의 플루트, 클라리넷, 호른, 바순을 위한 4악장 구성이었다. 그해 가을 요제프 요아힘과 클라라 슈만이 이 작품을 살펴보았는데, 두 사람 모두 이 작품이 교향곡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더 큰 편성으로 편곡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2월 8일 브람스는 요아힘에게 이 세레나데를 교향곡으로 바꾸기 위해 대형 악보지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다. "이 작품이 하이브리드 형식이라는 걸 점점 깨닫고 있네. 뭔가 제대로 된 건 없어. 다만 지금은 내 첫 교향곡에 대한 아름답고 장대한 구상을 갖고 있을 뿐..." 그러나 12월 17일까지 그는 이 작품에 추가할 두 개의 스케르초를 작곡하며 이 곡을 다시 세레나데로 구성해 교향곡 장르를 피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작품의 편성 및 장르에 대한 브람스의 혼란은 계속되었는데, 결국 1859년 3월 28일 함부르크에서의 첫 공개에서는 원래의 편성에 6악장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완전히 오케스트레이션을 끝낸 악보에는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이 각각 두 대씩, 호른 네 대, 팀파니, 현악기 편성에 전과 동일한 6악장 구성, 첫 제목은 교향적 세레나데(Sinfonie-Serenade)로서 1860년 3월 3일 하노버에서 정식 초연되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브라이트코프 운트 헤르텔 출판사에서 지금의 세레나데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실제로 이 세레나데는 고전주의 음악의 수많은 공명이 담겨 있다. 하이든의 '런던' 교향곡 마지막 악장의 주제와 관련된 선율(선율과 베이스 사용이 유사함)로 시작하며, 세 번째 악장은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 가운데 느린 악장의 몇몇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다섯 번째 악장은 베토벤의 교향곡 2번과 바이올린 소나타 '봄'의 트리오를 모델로 삼고 있다. 1악장과 3악장은 소나타 형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마지막 론도 악장에도 발전부가 중심 역할을 하며 소나타 형식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어떤 조성에서든 토닉과 도미넌트를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화음 가운데에서 고전적인 명료함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주제와 화성의 전개는 시퀀스(sequence)를 통해 이루어진다.

오케스트레이션 또한 브람스 치고는 이례적으로 간결하고 투명하며, 특히 독주 악기에 의존하는 방식과 4악장의 악기 편성에서는 초기 실내악 버전(처음 소규모 편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브람스가 이 작품 제목을 세레나데로 확정한 것은 고전 음악과 가까운 성격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당시에는 잊혀진 세레나데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후반 차이콥스키, 로베르트 폭스, 드보르작,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요제프 수크 등의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이 세레나데는 근대적인 웃으로 갈아입으며 성공적으로 계승되었다.

글: 박제성(음악칼럼니스트)



Camerata RCO

“작은 앙상블의 레퍼토리가 다를 뿐 아니라, 우리는 실내악이 더 개인적이고 친밀하다고 느낍니다. 카메라타 RCO로 함께 공연하면서 오케스트라 동료들을 더 잘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희는 관객과 가까이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줍니다.”

카메라타 로열 콘서트헤바우(Camerata RCO)는 세계 최정상 교향악단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듀오부터 소규모 실내악까지 다양한 편성으로 실내악을 연주한다. 특히 관악기와 현악기를 위한 고전적이고 낭만적인 레퍼토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존하는 작곡가들과도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며 연주하고 있다. 실내악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 실내악 연주를 같이하며 이는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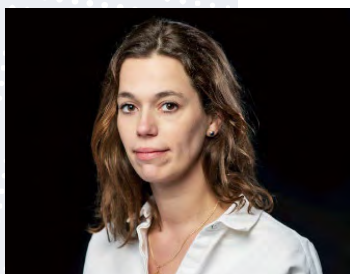
카메라타 RCO는 네덜란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발히 공연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상주 공연이 여러 차례 있으며, 이를 통해 관객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왔다. 뉴욕, 민스키, 도쿄, 서울, 비엔나, 로마, 호놀룰루, 마드리드 등 세계 각지에서 연간 50회 이상의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도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Gutman Records 레이블을 통해 여러 장의 음반을 발매해왔다. 가장 최근 앨범은 2021년에 발매된,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을 실내악 편성으로 편곡한 작품으로 올리비에 파티가 지휘를 맡았다.



Violin I

Marc Daniel van Biemen

마르크 다니엘 반 비멘(Marc Daniel van Biemen)은 2012년 5월, 24세의 나이에 베를린 필하모닉 카라얀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린 단원으로 입단하였다. 그는 스코틀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 베르비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카네기 홀에서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지휘 아래 연주한 예일 필하모니아,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카데미에서 객원 악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네덜란드 국립 바이올린 콩쿠르 오스카 벡(Dutch National Violin Competition Oskar Back)에서 2위를 차지하였으며, 프리츠 크라이슬러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Violin II

Joanna Westers

조안나 웨스터스(Joanna Westers)는 2011년 4월 부터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제2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위트레흐트 예술대학교에서 크리스툰담(Chris Duindam) 교수에게 사사하며 우등으로 연주 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녀는 프린스 베른하르트 문화재단(Prince Bernhard Cultural Fund)과 VSB 재단의 장학금을 받았으며, RCM 콘스탄트 키트 & 램버트 장학금(RCM Constant Kit and Lambert Scholarship)의 수혜자로 선정되어 영국 런던 왕립음악대학(RCM)에서 레본 칠링기리안 교수에게 사사하며 지속적으로 공부하였다.



Viola

Santa Vižine

산타 비지네(Santa Vižine)는 2017년 12월,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비올라로 입단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 수석 비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라트비아 리가 출신인 비지네는 2011년 자제프스 비톨스 라트비아 음악 아카데미(Jāzeps Vītols Latvian Music Academy)를 졸업하였으며, 다수의 라트비아 및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였다. 2009년부터 2016/17 시즌까지, 그녀는 기돈 크레머가 이끄는 크레메라타 발티카에서 수석 비올리스트로 활동하였다.



Cello

Johan van Iersel

요한 반 이에르셀(Johan van Iersel)은 1997년 9월,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의 부 수석 첼리스트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그는 위트레흐트 음악원(Utrecht Conservatory)에서 엘리야스 아리즈쿠렌(Elias Arizcuren) 교수에게 사사하였으며, 1995년 우등 졸업하였다. 이후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필립 물러 교수에게 사사하였으며, 지그프리드 팔름,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하인리히 쉬프 등의 마스터클래스에도 참여하였다. 프린세스 크리스티나 콩쿠르, 네덜란드 젊은 음악 인재 재단 콩쿠르, 포스트뱅크 스벨링크 콩쿠르, 실버 프린덴크란스 콩쿠르에서 입상 및 우승하였다. 예린 발,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부악장 티에르트 톱(Tjeerd Top)과 함께 베르메르 트리오(Vermeer Trio)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블라우 스트링 콰르텟(Blaeu String Quartet)의 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Double Bass

Nicholas Schwartz

보스턴 출신의 더블베이스리스트 니콜라스 슈워츠(Nicholas Schwartz)는 2013년 8월부터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에드윈 바커(Edwin Barker)와 매튜 맥도널드에게 사사하였다.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에서 객원 연주자로 정기적으로 활동하였으며, 2012-13 시즌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아카데미에서 연주하였다. 슈워츠는 국제 더블베이스 협회 콩쿠르 및 스톨버그 국제 현악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하였다.



Flute

Julie Moulin

프랑스 중부 오베르뉴 출신인 플루티스트 줄리 물랭(Julie Moulin)은 시릴 쿠틀리에(Cyril Coutie-r), 코린 사놀(Corinne Sagnol), 에르베 오티에(Hervé Hotier)에게 사사하며 플루트를 공부했다. 이후 파리에서 뱅상 뤼카(Vincent Lucas)와 1년간 수학한 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리옹 국립고등음악원에서 필립 베르놀드, 줄리앙 보디몽, 질 코탱(Gilles Cottin)에게 배우며 기량을 갈고 닦았다. 졸업한 직후,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아카데미에 선발되었으며, 불과 몇 달 만에 제2 플루트 및 알토 플루트 연주자로 입단하는 영예를 안았다. 실내악에 깊은 열정을 가진 줄리 물랭은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클라리넷 주자인 브루노 보난세아(Bruno Bonansea)와 함께 듀오 야티(Duo Yati)를 결성하여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경력을 지닌 목관 오중주단 콰텟 K의 멤버로도 활약하고 있으며, 프랑스 남서부에서 열리는 실내악 페스티벌 'Les Echappées Musicales du Médoc'의 공동 창립자이자 예술감독으로서 실내악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Oboe

Alexander Krimer

오보이스트 알렉산더 크리머(Alexander Krimer)는 2020년 2월 부터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태어난 그는 독일에서 성장하였으며, 열 살에 오보에를 시작하여 본에서 하인리히 크라이플(Heinrich Kreipl)에게 사사했다. 이후 뤼벡 국립음대에서 디트헬름 요나스(Diethelm Jonas) 교수에게, 파리 국립음악원 자크 티스 교수에게 사사하였으며, 라이프치히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국립음대에서 닉 도이치(Nick Deutsch)교수에게 사사했다. 2019년에는 일본 퍼시픽 뮤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오보이스트로 활약하며 오케스트라 및 실내악 연주 라로서의 활동과 더불어, 베르기슈 심포니 오케스트라(Bergische Symphoniker), RTV 슬로베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보후슬라프 마르티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실레지안 필하모닉과 협연하며 솔리스트로서도 활발히 무대에 올랐다.

Clarinet

Hein Wiedijk

클라리네티스트 하인 비디이크(Hein Wiedijk)는 암스테르담 스벨링크 음악원(Sweelinck Conservatory)에서 수학하였으며, 1996년 9월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에 입단하였다. 그는 실내악 연주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피아니스트 프랑크 판 더 라르(Frank van de Laar), 첼리스트 피터 비스펠베이 등과 협연한 바 있다. 하인 비디이크는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재단의 컬렉션에 소장된 C조, B-flat조, A조 클라리넷을 연주하며, 독일의 악기 제작사 'Schwenk & Seggelke'가 오케스트라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박스우드 클라리넷과 뵐리처(Wurlitzer) 바셋 호른 또한 보유하고 있다.



Bass Clarinet

Davide Lattuada

베이스 클라리네티스트 다비데 라투아다(Davide Lattuada)는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음악원(Giuseppe Verdi Conservatory)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로렌초 구초니(Lorenzo Guzzoni), 로코 파리시(Rocco Parisi), 마테 베카바츠(Mate Bekavac), 후베르투스 루돌프 페르헤이(Hubertus Rudolf Verheij)에게 사사하며 음악적·예술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받았다. 1998년부터 그는 정기적으로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Orchestra del Teatro alla Scala) 및 필하모닉과 함께 연주하였으며, 2005-06 시즌에는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2006년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에 입단하였고 2016년부터는 리카르도 샤이의 초청을 받아 루체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Contra Bassoon

Simon Van Holen

시몬 반 홀렌(Simon Van Holen)은 헤이그 왕립 음악원에서 수학한 후, 뒤셀도르프 로베르트 슈만 국립음대에서 구스타보 누네즈 교수에게 사사하며 2010년 졸업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뛰어난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아 독일 학술 교류처(DAAD)에서 수여하는 외국인 학생 예술 장려 상을 받았다. 그는 체르마트 페스티벌 아카데미와 구스타프 말러 아카데미에 참가하였으며, 빌라 무지카 라인란트-팔츠 재단(Villa Musica Rheinland-Pfalz)의 장학금을 받아 메나헴 프레스러, 잉고 고리츠키, 세르조 아졸리니(Sergio Azzolini) 등 저명한 연주자들과 함께 실내악 무대에 올랐다. 2011년 그는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솔로 콘트라바순 주자로 임명되었으며, 2012년부터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에서 같은 직위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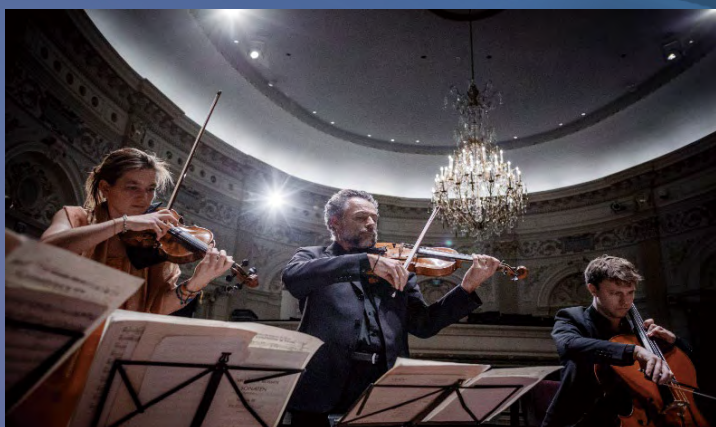


Principal Horn

Laurens Woudenberg

로렌스 바우덴베르흐(Laurens Woudenberg)는 아홉 살 때 레지덴티 오케스트라(Residentie Orkest)의 호른 연주자 루이즈 세펠에게 처음으로 호른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영감을 주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섯 해 뒤 이미지 문제로 인해 호른을 내려놓고 베이스 기타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호른에 대한 사랑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열일곱 살의 나이에 다시 호른을 잡아, 고향 헤이그(Hague)의 왕립 음악원(Koninklijk Conservatorium)에서 한스 둘라르트(Hans Dullaert)와 헤르만 예우리센(Herman Jeurissen)에게 사사하였다.

2006년, 로렌스 바우덴베르흐는 헛 헬데르스 오케스트라(Het Gelders Orkest)에 호른 주자로 입단하였고, 이후 수석 호른 주자로 활약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러 저명한 오케스트라와 앙상블에서도 객원 연주자로 무대에 섰다. 2012년부터 그는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의 수석 호른 주자로 재직 중이다. 그는 실내악 연주에도 깊은 열정을 지니고 있으며, 카메라타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와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브라스와 함께 자주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CAMERATA RCO

Music van het Konink Concertgebouworkest

07.04 FRI | 19:30

**카메라타 로열
콘서트헤보우**

Camerata RCO

예술극장 극장1

ACC



10.23 THU | 19:30

백건우와 모차르트

예술극장 극장2



SUPER

11.07 FRI | 19:30

게리 호프만 첼로 리사이틀

예술극장 극장2

CLASSIC



다음 공연 소개

NEXT PERFORMANCE

2025 ACC 브런치 콘서트

7월 예술칼럼니스트 전원경의 '재즈와 욕망의 도시, 뉴욕'



음악, 미술 그리고 해설이 어우러져
뉴욕 예술의 흐름을 따라가는 감상 콘서트

공연일시 7. 30. (수) 11:00
공연장소 예술극장 극장2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가격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8월 마리아 김 with Str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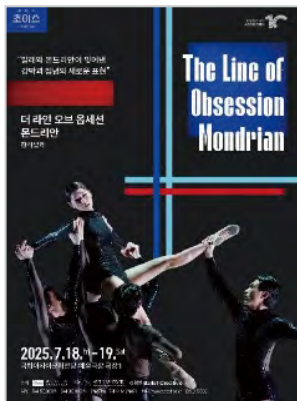


스트링 체임버와 재즈 트리오의 완벽한 조화로 풍성하고
서정적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최고의 재즈 콘서트

공연일시 8. 20. (수) 11:00
공연장소 예술극장 극장2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가격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2025 ACC 초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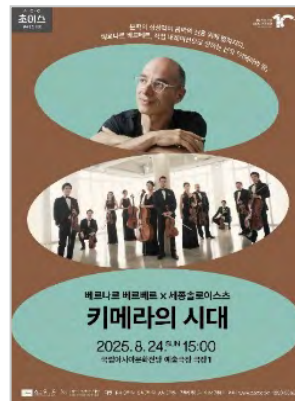
몬드리안 더 라인 오브 옵세션



정형일 발레크리에이티브의 현대 발레 공연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발레의 몸짓에 몬드리안이
추구한 선의 질서와 도형을 조합해 색채를 입힌다.

공연기간 7. 18. (금) 19:30, 7. 19. (토) 15:00
공연장소 예술극장 극장1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가격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베르나르 베르베르 x 세종솔로이스츠 <키메라의 시대>



세계적인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국내 최초로 클래식 음악무대에 서는 공연

공연일정 8. 24. (일) 15:00
공연장소 예술극장 극장1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가격 R석 90,000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전시소개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

뉴욕의 거장들

2025. 7. 18.
~ 10. 9.

MASTERS OF NEW YORK:
THE GENERATION OF
ROTHKO, POLLOCK AND
KRASNER
From the Collection of The
Jewish Museum, New York



NAVER (뉴스) 티켓링크

Artwork by Jackson Pollock, "Autumn Rhythm (Number 30)", 1950. Oil on canvas, mounted on compressed board, 124.8 x 249.8 cm. Photo © The Jewish Museum, London & the Estate of Jackson Pollock.



거장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6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www.acc.go.kr 1899-5566

UNESCO CLASH
ACC 38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Co-organized by The Jewish Museum, New York, and the Foundation for the Exhibition of Contemporary Art in Association with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Foundation, Korea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nd E&M Partners, Seoul

주최 ACC 38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서울신문 Jewish Museum

후원 한국문화재단 KBS 미디어 ena

협력 N (국립아시아문화전당) POLLOCK-KRASNER FOUNDATION

공연소개
2025 ACC 엑스뮤직페스티벌

A×MF 2025.8.29.-8.31. **XMusic Festival**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일대



ACC

A C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National Asia Culture Center

김도연 퀸텟 / 오존×카더가든 / 터치드 / 전송이 노넷×느닷 / 민영치×히다노 슈이치 / Kabaka Pyramid / NubimKIM Group / Fran&Flora /
협금×Alice Zawadzki / 애니멀 다이버스 / 단편선순간들 / Senyawa / 64ksana

